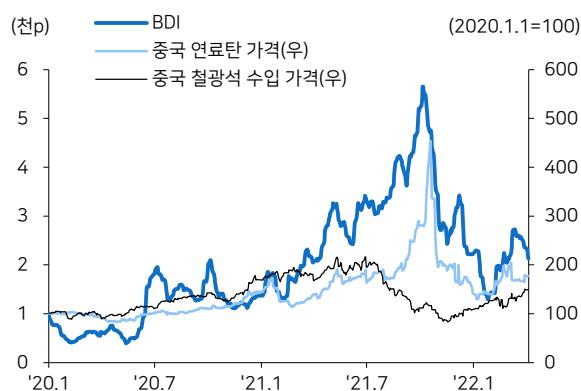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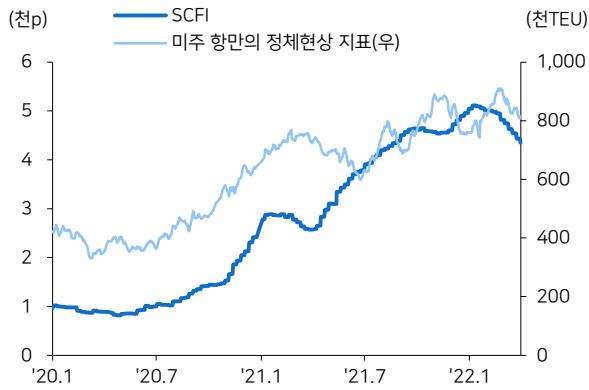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61.0p(-6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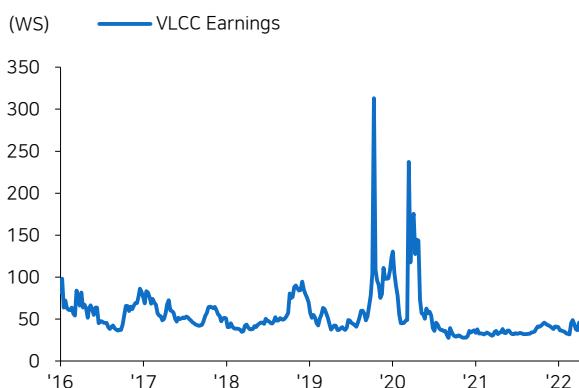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348.7(-85.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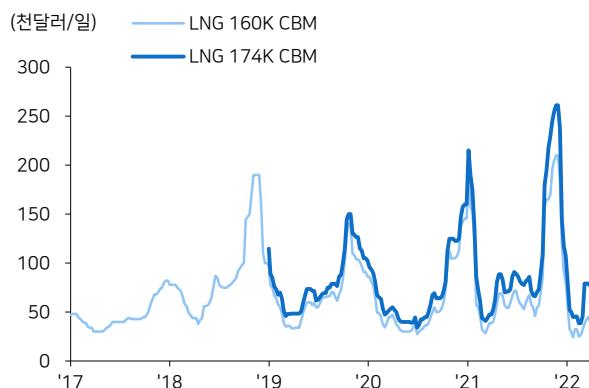
VLCC Spot Rate

45.9(+9.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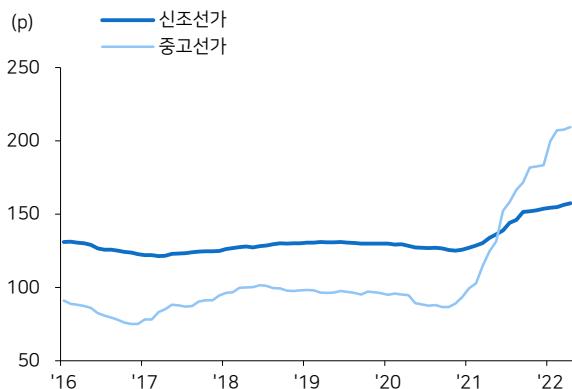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39.5p(-5.8p WoW)
77.0p(-2.3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7.3p(+1.1p WoW)
209.4p(+1.7p WoW)



항공시장 지표

273.0p(-0.3p DoD)
97.6p(-2.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국토부, 코로나 이후 운수권 첫 배분…LCC, 몽골 알짜노선 밤나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거쳐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몽골 노선은 높은 가격에 도 탑승률이 높아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데,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LCC들이 운수권을 신청했다고 알려짐. 국토부는 우선 몽골노선에 주 9회의 추가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으로 알려짐. (에어진)

Europe snapping up alternative coal supplies before proposing Russia ban

유럽이 러시아 밖 대체 석탄 수입을 제재조치 발표 전부터 시작했다고 보도됨. 브로커 Banchero Costa에 따르면 2022년 1-3월 유럽의 미국 석탄 수입량은 전년대비 60% 증가했고, 콜롬비아 석탄 수입량은 50% 증가함. 다만 1분기 중 러시아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38%지만, 감소 추세임. 유럽연합의 현실적인 석탄 대체 수입처는 콜롬비아, 미국, 호주로 언급됨. (Tradewinds)

EU, 러시아산 석탄 수입금지 합의 못해…“독일·오스트리아 등 이견”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됨. 독일은 세 제재안이 향후 계약에만 영향을 미칠지, 기준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함. 7일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독일·오스트리아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의 반대로 타협이 이뤄질지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보도됨. (머니투데이)

World-leading tanker giant born as Frontline and Euronav reveal \$4.2bn merger

Frontline과 Euronav가 합병을 통해 탱커시장 1인자로 거듭나게 됐다고 보도됨. 42억달러 규모 합병으로, Euronav 59%, Frontline이 41% 지분을 갖는 형태임. 합병 후 선대는 VLCC 69척, Suezmax 57척, LR2/Aframax 20척을 갖추게 됨. (Tradewinds)

삼성중공업, LNG선 1척 수주

삼성중공업이 Celsius Shipping으로부터 180,000CBM급 LN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5년으로 알려짐. 2021년 12월 Celsius Shipping이 발주한 선박은 척당 2.08억달러였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1분기 발주된 선박 중 61%가 대체 연료 추진선

2022년 1분기 중 발주된 신조선 중 61%가 대체 연료 추진 선박으로 알려짐. 이 중 LNG선을 제외하면 전체 신조선의 48%와 10% 가 각각 LNG추진선과 ammonia-ready선으로 알려짐. 2021년 발주된 전체 신조선 중에서는 32.7%가 대체 연료 추진 선박이었다고 알려짐. 한편, 현행 선대 중 약 29%가 2023년 CII 평가에서 D 혹은 E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